

다니엘의 믿음과 언약적 응답들 -복음으로 여는 다니엘- 다니엘 6:10, 에베소서 6:12

정운돈 목사님

* **단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 **엡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떤 세상적인 응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리와 민족과 나의 현상과 특별히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나에게 주신 절대미션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레마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도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 시대적 위기와 영적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명

1. BTS복귀 그리고 복음적 관점의 해석 시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곳에서 전쟁과 고통,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 우리나라 광화문광장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인 '아미(ARMY)'들의 거대한 축제가 열렸다. 좌석에 앉은 인원만 2만 2천 명, 전체 방문객은 2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시대적 흐름을 보기 위해 관련 영상을 1시간가량 유심해 지켜보았다. 솔직히 내 기운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잘생겼거나 춤과 노래가 압도적이라고 느껴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팬이 그토록 열광하는 현상은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그들을 매우 기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외롭고 힘든 연습과정을 이겨내며, 거대 방송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그들의 성실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그들의 음악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점도 인상 깊다. 특히 그들은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면제를 요구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섰다. 과거 병역기피로 20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다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하다. 잘 성장해서 진짜 세계에 한류를 다시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되었다. 세상음악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한 시간표라고 생각한다. 어제 축제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라이브로 방영되었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사랑하며 제 발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만난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한국어를 매우 능숙하게 구사했다. 그 거에는 우리가 언어를 배워 선교지로 나갔어야 했지만 이제는 237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찾아오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영화산업이 기독교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 은연중에 복음의 기반을 다져놓았듯이, 대중문화의 확산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왕의 왕(King of Kings)'같은 작품들도 비록 그 안의 복음적 메시지는 희미할지라도 복음의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조차 진정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한다. 이처럼 세상문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깊이는 알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완벽한 진리를 담아 전달해야 한다. 성도들은 날마다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후암의 씨앗이 뿌리는 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해야 한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자유되고, 사단이 물러가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문명 속에 역사하는 후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체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제 방탄소년단(BTS)의 축제를 보면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훗날 다니엘과 같은 복음의 인물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니 복음을 가진 훌륭한 배우자들 만나 결혼을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불교신자였던 한 유명가수도 신실한 기독교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후 훌륭한 신인인으로 변화된 사례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야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완전한 결론이라는 이 완벽한 진리는 오직 복음을 가진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해답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꺾으며 기도로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한다.

2. 반복되는 역사와 영적 사실의 분별(에베소서6:12)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국제정세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2,500년 전 다니엘이 끌려갔던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란의 옛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실'은 강대국들의 전쟁이다. 정치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면,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여 이스라엘의 위협을 제거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나 이스라엘의ネタ냐후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갈등, 미움, 전쟁의 가장 깊은 배후에는 사단과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명확히 말씀한다. 히틀러나 김정은, 시진핑 등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수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통치자들의 배후에는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 사단과 마귀, 후암과 귀신의 세력은 결코 인간의 참담과학이나 AI, 미사일이나 원자폭탄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적인 후암 세력을 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세계복음화를 이끄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3. 시대적 위기 속 대한민국의 사명과 준비

1)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보호받는 대한민국 유럽의 역사를 보면 국경이 맞닿아 있어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강대국 사이에 끼여있는 매우 험난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매우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이 함부로 한반도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국방력을 키우다 보니,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처럼 위기 속에서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같은 강대국을 살리며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키신 이유도 세계를 살리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타국에 짓밟히고 포로생활을 반복하며 문제가 되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명, 소명, 사명을 망각하고 "여가야 출사오니"하며 안일함에 빠져 진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의 피 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이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실 수 있음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준비하라 전도는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가볍게 던지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한다. 새신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전도를 놓고 갈등해서는 안 되며, 땅끝까지 이르러 중언이 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예수전 선지자의 생고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 세계적인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기도를 하며 '구원의 길'을 그리고, 대상자에게 언제든 전할 수 있는 1분, 3분, 1시간짜리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4.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의 삶과 영적 승리

1) 언약의 흐름을 이어받은 다니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는지 알 수 있다. 다니엘 시대보다 100-200년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수십 년 동안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1차, 2차, 3차에 걸쳐 참혹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80-9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그 복음의 언약을 지켰다. 다니엘의 이러한 언약적 삶은 훗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키루스)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너진 성전재건을 명령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약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회복하게 된 역사의 중심에는 다니엘이 있었다.

2)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된 삶의 자세 다니엘은 미사일을 쏘거나 무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는 포로라는 비참한 신분 속에서도 결코 "내 일이 아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 결과 누부갓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실력과 중심을 절대적으로 인정받았다. 직장과 학업현장에서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의 전부 아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인정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니엘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닮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방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중의 태도이다.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인 그룹이 된 것은 결코 영적일 하두아 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10여 년 동안 땀을 흘리며 밤을 새워 안무를 만들고, 레깅을 절제하며 작곡과 아이디어 창출에 매진했다. 세상의 문화도 이토록 질철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정점에 오르는데, 허물며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만큼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24시간 오직 무릎과 사명에 올인하고 집중하시길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25시, 영원한 응답을 누리길 축원드린다.

3) 영적 사실을 직시하는 믿음의 결단 성경 속 다니엘이 활동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바꾸었다. 본래 큰 왕국이었던 메대의 공주가 작은 왕국 페르시아로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고레스(키루스) 대왕이다. 고레스 대왕이 성장하여 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대를 정복하면서 메대와 바사(페르시아)가 통합되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이란인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국호를 '아리아의 땅'이라는 뜻의 '이란'으로 변경했다. 즉, 현재의 이란이 바로 다니엘과 고레스 왕 시대의 그 페르시아 제국인 것이다. 그물과 등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갈등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그처럼 확고한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진실을 넘어 그 배후에서 통치자들을 조종하는 후암 세력을 직시하고, 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4) 현장의 흑암을 꺾는 참된 복음의 능력 최근 화제가 된 대중매체나 영화를 보면 무명이 웃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귀신들린 무명이 귀신을 내 쫓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살릴 해 주어야 한다. 과거 섬에서 목회하던 동기 목사님의 일화이다.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서 찬송하며 기도했다니 귀신 들린 자가 "거시 때문에 못 나가겠으니 저 가서 좀 치워 달라"고 소리쳤다. 그 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바로 곁에 있던 성경책이었다. 성경책의 영적 권세 앞에 악한 영이 두려워 된 것이다. 나의 고모 할머니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오빠를 따라 교회에 다니며 오직 예수님을

민었다. 어느 날 장터에 구경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곳을 하던 무당이 갑자기 뛰기를 멈추고 어린 고모할머니를 쳐다보며 "너 예수쟁이지? 너 때문에 귀신이 안 오니 빨리 가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고모할머니는 평생 글을 몰라 성경책을 거꾸로 들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지만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모신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끈끈한 복음과 믿음이 흑암을 꺾고 그 가문을 살렸으며 나아가 이분들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

5)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준비와 팀구성 원벽한 복음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피 값을 파수꾼인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다. 현장에 나아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운동을 하며 흑암을 꺾어야 한다. 나는 전 세계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는 성경의 핵심이나 실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성경 66권의 핵심을 가르칠 메시지를 늘 구상하며 준비하고 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AI기술을 활용한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여 전 달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램본트들과 성도들도 세계복음화를 중심에 두고 언어공부와 산업의 세계화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놓치고 나 혼자만의 이익에 갇혀 있으면, 결국 염려에 빠지고 정신병과 귀신의 역사에 시달릴 뿐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영적인 팀을 이루어 강대국을 정복했던 것처럼 바이오, 정치, 경제, 문화, 예능, 스포츠, IT등 각 전문분야의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는 24시 절대언약을 품으면 하나님은 시대를 선도할 아이디어와 지혜, 그리고 빛의 경제를 넘치도록 부여하실 것이다.

1. 흑암의 현장에서 승리한 다니엘의 믿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쳐잡혀 무너졌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약 70여 년의 세월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쓰임받으며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하게 복음에 뿌리내린 믿음의 결단이었다.

1) 뜻을 정하여 결단한 믿음(다니엘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사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단했다. 이는 소실자 한강의 '채식주의자'처럼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우상의 제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들을 생명을 걸고 단절하겠다는 영적 결단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뜻을 정하다(술 레브)'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깊이 굳게 결정했다는 의미이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주변 친구들의 거친 입버릇과 만류하는 욕설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욕을 하지 말자고 뜻을 정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절제하며 흑암을 꺾기 위해 노력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하고, 술, 담배와 도박, 게임 등에 빠져 살아가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영적인 해악을 철저히 단절하고 주일성수, 십일조, 전도와 선교의 지리에 뜻을 정해야 한다. 어떤 작부터 온전히 십일조를 드렸을 때, 우리 3형제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다. 때로는 사정 상 하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넘치는 응답으로 채워주셨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 과거 전도사 시절, 세 명의 여자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일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유를 물으니 "주일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라고 기도 중"이라고 했다. 속으로는 '실력도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까다롭게 직장을 고르나'하고 걱정했으나, 속으로는 '직심으로 기도응답을 받아 주일성수를 완벽히 보강하는 훌륭한 직장에 취업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책임지신다.

2)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믿음(다니엘3:17-18)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 절하지 않으면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뛰어난 인재였으나 우상숭배 앞에서는 단호했다.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물을 삼키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야말로 흑암을 박살내는 최고의 믿음이다. 불 속에 던져져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한다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3) 하루 세 번, 감사의 영적 서밋타임(다니엘6:10)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던 사자들에게 던지겠다는 조서에 왕의 모양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장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적자들이 그를 죽이려 함정을 판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결국 사자들에게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 왕은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며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을 사자들에게 던져 넣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는 나라가 망한 비참한 현실이나 전쟁 중에 어머니를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아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단순한 "사단이 물러가라"고 외친다고 해서 흑암이 꺾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흑암세력이 완전히 갈라피는 것이다. 어려움과 위기, 질병과 고통을 주신 것조차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비밀을 가진 다니엘에게 이상과 환상, 그리고 천 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염려하며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중만을 빠지 못해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약'이 확실한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에 염려와 근심, 불안에 빠지는 것이며, 이러한 불신앙과 불안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결국 재앙과 문제를 불러온다. 흑암을 감사로 완전히 꺾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는 말을 한다. 현재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 감사하지 못하고 인상을 쓰며 심각한 척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인 것 같고 감정도 깊었지만, 나중에 "왜 그랬을까"싶을 정도로 아무런 느낌도 남지 않게 된다.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매일 만났던 친구들을 떠올려 봐도 이름조차 가물거릴 때가 많다. 이처럼 복음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 재앙

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친구, 즉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다. 영적인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4) 사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믿음(다니엘6:23) 다니엘은 사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경제위기, 질병, 암, 혹은 전쟁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굶주린 사자가 바로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반역자, 혹은 애완건을 주셨구나"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죽음조차 기꺼워 여길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2.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은 언약적 응답들

다니엘은 포로라는 절망적인 신분 속에서도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언약적 응답을 받았다.

1) 제국의 문명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언약(다니엘2장)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반문하며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다. 왕은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부터 맞히고 해석까지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에 다니엘은 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친구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여 왕과 똑같은 꿈을 보게 되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거대한 우상의 신상이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에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때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상을 친 '돌'은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의 강대국과 제국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라는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완성하실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다. 우리가 복음과 믿음 속에 있으면 이처럼 천 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미리 보는 눈이 열린다. 우리의 후대들을 ICT, 생명공학, 교육, 문화 등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으로 키워야 한다. 다니엘과 예스터와 같은 인물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과 세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 자에게는 현실의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령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극한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예비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인 사실로 믿고 누리려는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주는 환상(다니엘7-11장) 다니엘 7장부터 11장에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역사의 흐름이 상세히 예언되어 있다. 특히 에겔서 38장에 등장하는 '마귀'와 '곡'의 전쟁처럼,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마귀'가 사탄의 나라라면, '곡'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이다.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처럼 잘못된 지도자가 서면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세상이 어떤 전쟁소식이 들려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야말로 끝이 온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3) 집중기도의 응답(다니엘10장) 다니엘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세 이레(21일)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하며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 집중기도를 통해 미래의 모든 청사진을 보여주셨다. 여러분이 가정과 삶과 직장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왜 이 사자들보다 나를 보내셨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문제 앞에서 며칠씩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0.1초 만에 결론을 내리고 답을 얻어야 한다. AI시대를 장악하고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외국어를 공부하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4) 영원한 부활의 소망(다니엘12:2) 다니엘 12장 2절은 구약성경 중 부활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삼관자이시다"라는 의미이다. 복음과 말씀에서 떠난 삶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소수일지라도 완전복음, 완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는다.

5) 전도자에게 약속된 찬란한 상급(다니엘12:3) 많은 사람이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결코 모두가 똑같지 않다. 생명을 벌고 헌신한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영광과 권세가 주어진다. 어느 책에서 읽은 세대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의 수많은 별이 전도자들이 다스릴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수준이 다르듯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의 풍요를 상상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은 부자들의 삶을 모른다. 최근 내 조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영국 런던에서 열린 버버리 패션쇼에 참석한 사진을 보았다. 같은 지구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 이처럼 천국에서도 최고의 상급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헌신적인 권사님들께 "천국가면 목사 집 말고 권사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농담을 하곤 한다. 최고상급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6)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와 총명(다니엘1:17, 20)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과 꿈을 있는 지혜를 주셨다. 다가올 AI, AGI, ASI 시대와 생명공학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과 영감이 필요하다.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세상의 지식인을 능가하는 영적 지혜를 누리야 한다.

결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현장,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후대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명과 이면계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말세지말에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들, 복음의 파트너들이 237년과 5,000종족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살리시는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에게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